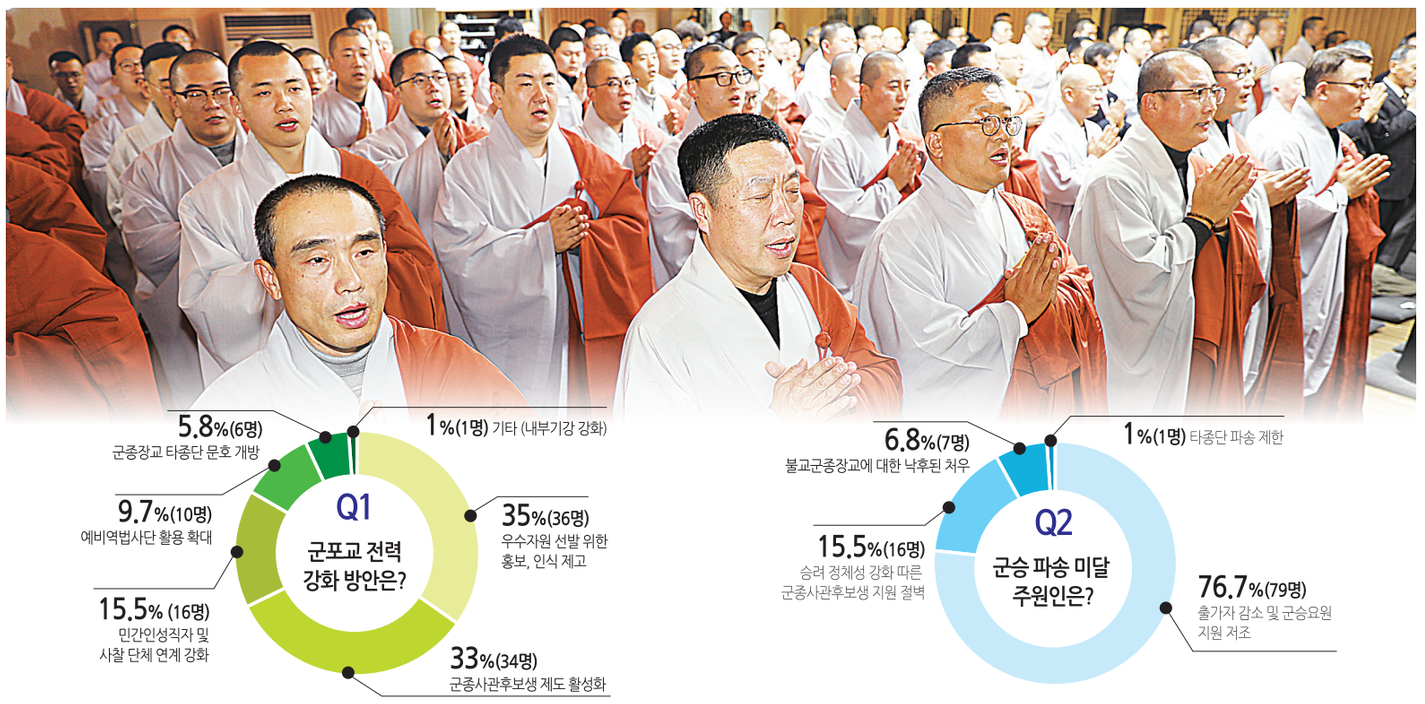
‘군승 연계출가’ ‘후보생 제도 활성화’ 선결과제

군승 파송 절벽이 다가온다

① 군승에게 듣다, 파송 절벽 원인과 해법은?

본지가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현역 군승법사 1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객관식으로 진행된 설문 외에도 군포교 현장에서의 우려점과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노덕현 · 임은호 기자



군포교, ‘군승 수급’에 달렸다

현역군승법사들은 군포교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군승법사 활용’이 대안이라고 꼽았다.

군포교 전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단수응답 시 △우수 군승자원 선발을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36명, 35%) △군종사관후보생 제도 활성화(34명, 3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에 반해 예비역법사단 활용 확대(10명, 9.7%), 민간인성직자 활용 및 사찰 · 단체 연계 강화(16명, 15.5%), 군종장교 타종단 문호개방(6명, 5.8%), 내부기강 확립 등 기타의견(1명) 등 다른 방안은 선택비중이 낮았다.

중복응답으로 확대해보면 △우수 군승자원 선발을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45명, 문항선택률 43.7%) △군종사관후보생 제도 활성화(41명, 문항선택률 39.8%) 등이 최우선 과제로 선택됐다.

이에 대해 J군승법사는 “예비역법사단과 민간인성직자들의 경우 고령으로 MZ세대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포교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교구와 국방부를 통한 교육과 관리가 가능하며 비교적 연령대도 낮은 군승법사들이 군포교 핵심”이라고 말했다.

중진급인 K군승법사는 “군신부들을 의무할당제로 파송하고 있는 가톨릭의 경우 민간인성직자를 축소하고 있다. 미등록 민간인성직자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군법당 포교 인력이 필요한 산간 등 격오지에 민간인성직자나 예비역군승법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실질적인 대안으로 꼽히지 않은 이유가 됐다.

군승 파송 미달 주원인 ‘출가자 감소’

군승 파송 미달의 주요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단수응답 시 △출가자 감소 및 군승요원 지원 저조(79명, 76.7%) △승려 정체성 강화 따른 군종사관후보생 지원 절벽(16명, 15.5%) △불교군종장교의 낙후된 처우(7명, 6.8%) △타종단 파송 제한(1명, 1%)을 이유로 들었다.

중복응답으로 확대하면 △출가자 감소 및 군승요원 지원 저조(81명, 문항선택률 78.6%) △승려 정체성 강화 따른 군종사관후보생 지원 절벽(37명, 문항선택률 35.9%) △불교군종장교의 낙후된 처우(31명, 문항선택률 30%) 등이 꼽혔다.

출가자 감소를 원인으로 꼽는 현장 목소리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군승 자체의 상대적인 이점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독신비구 자격요건은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 군종실에서 근무한 D군승법사는 “독신 예외 조항 삭제 이후 군종사관후보생 감소가 현격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비혼주의자들이 늘고 있는 현 세태에서 독신 여부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관 연도가 낮은 L군승법사는 병역 미필 스님 입장에서 일반사병 복무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며 군종장교의 3년 단기복무의 복무기간 격차가 더 많이 나게 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ROTC나 부사관 제도도 사병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 200만원 상향이 추진되며 상대적인 메리트 감소로 지원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J군승법사는 올해 국방부에서 모집한 드론부사관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드론부사관의 경우 임관 시 장기복무를 보장하여 경쟁률이 20:1에 달했다. 군종장교로 장기복무를 원하는 이들이 충분히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이에 따른 지원자도 늘어날거란 분석이 가능하다.

J군승법사는 “현실적인 이점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남은 건 군에서 포교하겠다는 원력”이라며 “군포교 필요성과 군승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과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쟁없는 선발, 역량의 질적 저하 우려

군승 파송 미달이 군포교 현장에 끼칠 영향에서는 임관 연도에 상관없이 우수자원 선발 부족으로 인한 미래 군포교 역량의 질적 저하를 가장 우려했다.

군승들은 파송 미달의 영향과 우려점에 대한 설문에서 단수응답 시 △우수자원 선발 부족에 따른 군포교 역량의 질적 저하(47명, 45.6%) △불교 TO 감소로 인한 군포교 전력 약화(44명, 42.7%) △현역 군승들의 급격한 업무부담 증가(8명, 7.8%) △군승 소수화로 인한 교단 내 위상 · 인식 약화(4명, 3.9%)를 선택했다.

복수응답에서는 △불교 TO 감소로 인한 군포교 전력 약화(61명, 문항선택률 59.2%) △우수자원 선발 부족에 따른 군포교 역량의 질적 저하(56명, 문항선택률 54.3%)가 우려점으로 꼽혔다.

군종특별교구 등에 따르면 군종장교 내 불교 TO는 국방부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하지만 미달 사태가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S군승법사는 “이웃종교인 개신교와 가톨릭은 파송이 원할하다”며 “국방부에서 군종병과를 총괄하기에 특정종교에서 계속 파송 미달 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전방 연대법사 자리가 목사들로 채워지는 걸 상상하기 싫다”고 말했다.

J군승법사는 “종단과 교구에서 그동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모색한 것이 군포교 역량의 질적 제고”라며 “경쟁을 통해 담보되는 우수자원 선발이 없으면 교육을 통한 질적 제고도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군승법사들은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할당제의 단점도 언급했다. 군포교 원력이 부족한, 의무로 임관한 이들에 대한 우려다.

타종단 파송 및 파송주체 변경엔 ‘부정’

대한불교청년회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등 8개 불교단체들은 4월 15일 ‘군승 확보에 한국불교 명운이 걸렸다’는 성명을 통해 조계종에 조속한 군승 확보와 군포교에 여타 종단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개신교의 ‘군선교협의회’와 같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한국불교종단협의회’로 이관해 범불교적인 참여를 도모할 것도 촉구했다.

군승법사들은 조계종 외 종단의 파송이나 파송 주체 변경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57명, 55.3%) △필요하다(45명, 43.7%)의 의견을 냈다.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서는 현재 조계종 단일파송 체제 하에 정립된 의식, 제도 등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의식, 제도 등이 종단 간에 사전에 합의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기했다.

또 다른 J군승법사는 “현재 교육편람 등을 만들어 의식 · 의례 등을 통일해놓은 상태”라며 군포교를 하려는 각 종단 입장을 보면 종단의 의식 · 의례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군승법사는 “협의체가 형성된다고 해도, 매년 파송 쿼터를 두고 어느 종단까지 배정할지에 대해 입장이 분분할 것”이라며 “만약 원불교와 같이 별도의 TO로 역량있는 종단이 진입한다면, 군장병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부분 공통의식을 만드는 등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출가제도 개편에도 입장 개진

군승 수급 문제에 있어 출가제도 개편 등을 통한 장기적인 수급 방안이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모아졌다. 단기적으로는 군종사관후보생 제도 활성화, 의무할당제 통한 해결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군승법사들은 군승 지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는 설문에서 단수응답 시 △출가제도와 연계한 군종사관후보생 모집 등 제도 개편(34명, 33%) △독신 예외 등 군종사관후보생제도 활성화(28명, 27.2%) △교구본사 의무할당 등 군승요원 충원(26명, 25.2%) △타종단 불교대학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확대(10명, 9.7%) △처우 개선 등 기타(5명, 4.9%)로 응답했다.

중복응답 시 △출가제도와 연계한 군종사관후보생 모집 등 제도 개편(49명, 문항선택률 47.6%) △독신 예외 등 군종사관후보생제도 활성화(39명, 문항선택률 37.9%) △교구본사 의무할당 등 군승요원 충원(34명, 문항선택률 33%) 등이 대안으로 꼽혔다.

최근 임관한 S군승법사는 “화수목금은 군인으로, 토일은 스님으로 사는 과정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연대법회만 해도 2000명에 달하는 이들 앞에서 법문을 하는 경험은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사찰에서 소임을 맡는 것에 비해 행정능력도 빠르게 배양된다. 스님들이 군종장교 경험을 갖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는 출가특위 위원장 정범 스님이 조계종 종립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출가제도 신설방안을 담은 ‘청소년 출가 ·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됐다. 정범 스님은 “국방부 기준에 따라 장교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과 달리 종단 기준으로 군승을 선발하여 파송하는 부분에서 군종사관후보생제도 활성화와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출가자 장기수급계획 속에서 이들이 병역 또한 자연스럽게 군종장교 복무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에서는 비슷한 궤다. 군승 수급 또한 출가제도의 혁신적인 변화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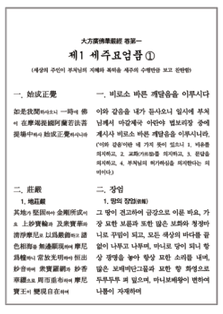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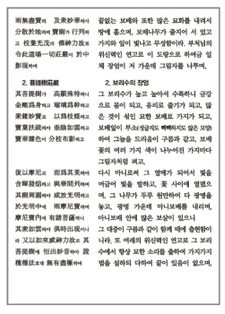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기획국장 현해 권기태 군승법사는 “군승법사들을 비롯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며 “종단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으면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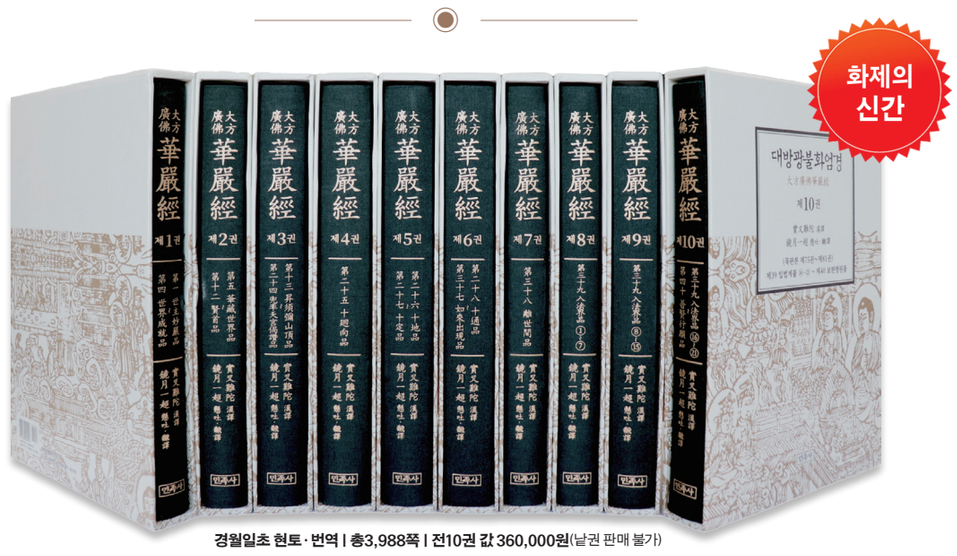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누군가 이 책을 보고
옛적에 내가 그랬듯이
먹먹한 가슴과 흐르는 눈물이 있어서 출가를 결심하고,
또 후래에 전하는 사람이 있기를 발원하고 또 발원하면서
이 책을 탈고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화엄의 세계에서 만난 감동!

대강백 동학사 화엄학림장 경월일초 스님,
평생의 원력으로 『대방광불화엄경』 완역!

왼쪽에는 경문經文, 오른쪽은 번역문으로 2단 편집
스승이 제자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일러주듯,
바로바로 대조하며 공부하기 쉽도록 직역直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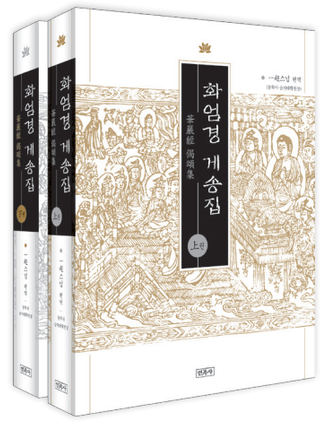


경월일초 현토 · 번역 | 총3,988쪽 | 전10권 값 360,000원(날권 판매 불가)

◉ 함께 읽으면 좋은 경월일초 스님의 책 ◉

“이 『화엄경』 게송만 독송해도 심오한 『화엄경』의 내용을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 머리말 중에서

『화엄경』(80권본) 39품의 게송을 모두 뽑아서
국내 최초 원문과 현토 · 번역한
『화엄경 게송집』 개정증보판 출간!



화엄경 게송집

경월일초 현토 · 번역 | 총 930쪽 | 전2권 값 85,000원(날권 판매 불가)

www.minjoksa.org | 02)732-2403~4 민족사